

청년리더여!

강한 어깨를 구하라!



‘감리교 청년 리더십 학교’

- 주제 : 청년 리더여!
가벼운 짐을 구하지 말고, 강한 어깨를 구하라!
- 일시 : 3월 21일(일) 오후 4시
3월 22일(월) 오후 7시
3월 23일(화) 오후 7시
- 장소 : 성수교회



초대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버겁습니다. 88만원 세대는 고착화 되었고, 직업을 가진 청년들 상당수가 인턴사원이거나 임시 계약직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실업 300만 시대에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가치와 질서는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지 힘에 벅찬 시대를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이티를 비롯한 남미의 지진과 지축 이동에 따른 지구멸망 위기설 등은 가뜩이나 힘겨운 삶에 두려움을 더 크게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버거운 삶, 내게 너무 힘겹다고, 무겁다고 짐을 덜어내 달라고 푸념하는 리더이기보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구하는 청년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굳건한 믿음, 삶은 흔들리는 청년 세대에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국 총무 김두범 목사





여는 예배

인도 : 정요섭 목사(꿈이있는 미래교회)

- 찬 양 성수교회 찬양단
- 묵상기도 다 같 이
- 찬 송 524장(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 이
- 기 도 조정림 청년(청년연합총무)
- 격 려 사 김두범 목사(교육국 총무)
- 희망의 말씀 박상철 감리사(성수교회)
- 성경봉독 인 도 자
- 강사소개 정현범 목사(교육국 청년담당)
- 찬양과 기도 성령이 오셨네(김도현 곡) 다 같 이
- 강한 어깨 말씀 이인선 목사(열림교회)
- 축 도 박상철 감리사



마침 예배

인도 : 김용협 목사(강북제일교회)

- 묵상기도 다 같 이
- 찬 송 323장(부름받아 나선 이몸) 다 같 이
- 격려의 말씀 김재근 목사(교육부 총무)
- 축 도 박상철 감리사





INDEX



강한 어깨를 구하라! - 이인선 목사 (1~2)



강한 어깨(성품) - 장경철 교수 (3~6)



강한 어깨(말씀) - 현철호 목사 (7~18)



강한 어깨(사랑) - 이성현 대표 (19~22)



강한 어깨(영성) - 황응식 목사 (23~26)



찬송과 찬양 - (27~29)



강한 어깨(성품) - 장경철 교수

사랑의 유통업자



장경철 교수

사랑은 영혼을 진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잃어버리기 위해 준비한 사랑만이
 진실된 사랑에 이룰 수 있다.
 '사랑은 베푸는 것'



강한 어깨: 성품

고린도전서 13 :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 : 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 :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 :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 성품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만, 장기간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성품의 연단이 형성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낳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2. 인내의 성품을 기르자.

인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3. 온유함의 성품을 기르자.

온유함이란 내게 주어지는 자극을 따듯하고 부드럽게 소화하는 능력이다.



4. 겸손함의 성품을 기르자.

겸손이란 무작정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이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 준 분들을 인정하고 높일 줄 아는 능력이다.

5. 절제의 성품을 기르자.

절제란 물러서고 매듭지을 때를 아는 능력이다.

6. 좋은 성품을 구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19]



좋은 성품은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는
능력의 빛입니다.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큐티(QT)

현철호목사 (백운교회)

감리교 본부 청년정책위원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중앙위원

1. 왜(Why) 큐티를 하는가?

"요즘 큐티 잘 하니?" "응? 안 해?"

청년 리더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질문이다.

그래도 이제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큐티를 한다. 감사한 일이다.

아직 큐티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큐티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한다.

특히 청년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들은 이런 부담감이 더욱 크다.

그러면 왜 청년 리더들은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일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맨날 하라고 체크한다. 때론 쪼신다(?). 압박감...

중간은 가야 하나까? 다른 리더들이 대부분 하나까 나도...

하나님 무서워? 알고도 안하나까 괜히 더 째째... 죄책감까지 ㅠㅠ ...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할까?

1)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일꾼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써 먹으려고?

결코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고전1: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자녀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큐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큐티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큐티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큐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밀접하게 느끼게 된다.
 이 친밀감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한다.

또 우리는 큐티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가게 된다.
호6:3절 -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만큼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러한 순종은 교제를 통한 친밀감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사귄의 단계 : 사귄 → 친밀감 → 신뢰감 → 하나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한다.

2) "로드십(Lordship)" 때문이다.

로드십(Lordship)?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 주인

강한 어깨(말씀) - 현철호 목사

좋은 자기의 시간과 삶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좋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만 행한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큐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로고스(Logos)와 레마(Rhema)
기록된 로고스(Logos)의 말씀이 레마(Rhema)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큐티이다.

결국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 주시는 주인의 음성대로 사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듣는 것.
이것이 큐티이고 이것이 로드십이다.
이 로드십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한다.

이 로드십은 예수님께도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요5:30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
판은 의로우니라"

요8:28절-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
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자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만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로드십의 모습이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로드십(Lordship)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한다.

2. 누가(Who) 큐티를 하는가?

누가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일까?

"나"이다.

큐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큐티는 공동체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큐티 적용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 목사가 설교준비하기 위해 하는 큐티? 옳지 않다.

하나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똑같은 본문을 같은 사람이 큐티를 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

"나"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세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구약시대에는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달려가도 된다.

아니 달려가야만 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큐티는 내가 홀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큐티는 "내가" 하는 것이다.

3. 언제(When) 큐티를 하는가?

큐티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새벽이 좋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도 이른 아침이었다.

출16:21절 -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별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열어가는 새벽을 가지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막1:35절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므로 가능하면 큐티는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벽이 어려운가?

오전에 하라.

바빠서 놓쳤는가?

오후에 하라.

그래도 못했다면 잠들기 직전이라도 하라.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늦어도 오전중으로는 큐티를 해야 한다.

강한 어깨(말씀) - 현철호 목사

왜?

큐티는 적용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큐티는 빠뜨리지 않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들려주신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큐티를 늦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만들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 내리는 만나를 이른 새벽에 거두었다.

남겨둔 만나?

모조리 썩어버렸다(출16:20절).

따라서 매일 매일 주시는 말씀의 만나로 하루 하루를 살아내려면

큐티는 매일 아침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의 아침은 너무 바쁘다.

이른 아침에 큐티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일찍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삶의 구조조정이 필수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제2상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코비, 김영사

『늘 급한일로 쫓기는 삶』 찰스험멜, IVP

Tip) 현목사의 경우는 이 시간에 큐티한다.

4. 어디서(Where) 큐티를 하는가?

큐티를 하는 장소

원칙적으로는 정해져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큐티를 함에 있어서 장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조용한 곳이 좋다.

사람이 없는 곳이면 더욱 좋다.

주변의 방해가 없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결국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쉬운 곳이 좋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막1:35절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물론 바쁠 경우 전철안에서도 큐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는 큐티 방해요소가 너무 많아 좋지 않다.

어느 청년과 중요한 상담을 교회 로비에서 서서 한 적이 있었다.

한 마디 하고 인사하고... 또 한 마디하고 인사하고...

그 청년과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구별된 장소로 가야한다.

상담실이나 기도실 등 장소가 중요하다.

청년 리더에게 큐티를 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만약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새벽 골방이 가장 좋을 것이다.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야했다면 조용한 도서관이 좋지 않을까...

Tip) 현목사의 경우는 이 곳에서 큐티한다.

5. 무엇을(What) 가지고 큐티를 하는가?

두 말 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이다.

큐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직접 큐티할 수 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큐티할 경우는 큐티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혹은 큐티책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할 경우는 큐티책에 저널링을 하면 된다.

보통 청년들은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큐티책에 있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쉽게 범하는 오류는 메디테이션이다.

큐티책 한 쪽에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해설을 먼저 보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은 큐티가 아니다.

그것을 먼저 보면 큐티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큐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 말씀과 직접 부딪혀야 한다. 제목, 해설 등에 선입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큐티!

성경 말씀(Text)을 가지고 하라.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에 순종해 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6. 어떻게(How) 큐티를 하는가?

결국 방법이다.

실제로 큐티를 하는 방법은 이미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중 한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 "관찰-해석-적용"

- PRESS법

Pray for a moment (잠깐 기도하십시오)

Read His Word (말씀을 읽으십시오)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Say back to God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Share with other what you have found (발견된 사실을 다른 분과 나누십시오)

큐티의 방법으로 꼭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청년리더라면

그대가 속해있는 청년공동체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라.

왜 그런가?

큐티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유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체를 위하여

한 가지의 큐티 방법론을 강의하도록 하겠다.

이 방법은 청년목회자연합에서 발간하는 Young2080 QTzine의 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필자가 이전에 섬겼던 아현교회 청년부는 약 9년 전부터 이 방법대로 QT를 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아현교회의 장년부까지 전 교회적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여 목상하고 있다.

다음은 필자가 2008년 2월 아현교회에서 강의했던 QT세미나의 내용 중 일부이다.

목상하는 교회를 꿈꾸며 열리는 QT세미나

QT! 이렇게 하세요.

① **기도**로 QT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기도는 길지 않게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② **본문**을 세 번 읽으세요.

신문을 읽는 것처럼 획 읽지 말고

연애편지를 읽듯이 꼼꼼하게 정독하며 읽으세요.

③ **도전된 말씀**을 적으세요.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부딪혀 오는 말씀을 목상노트에 기록하세요.

한 단어나 한 구절 혹은 한 절 등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④ **삶의 상황**을 적으세요.

도전된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나의 삶의 상황을 일기를 쓰듯 기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삶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변화**를 적으세요.

도전된 말씀과 삶의 상황을 동시에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마음속의 변화를 역시 일기를 쓰듯 기록합니다.

⑥ **적용**할 것 한 가지를 적으세요.

QT의 생명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 적용의 3P 원칙 :

개인적(personal) - 나에게 적용해야, 공동체가 아닌 나.

구체적(practical) -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안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실천가능(possible) - 불가능한 적용 안됨. 가능한 적용.
실천 가능해야...

즉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적용거리를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⑦ **기도**로 마치세요.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⑧ **순종**하세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QT! 이렇게 나누세요.

QT를 나눌 때에는 “도전-상황-변화-적용”의 순서로 읽으며 나눕니다. 반드시 기록한 내용을 읽습니다. 나누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내용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오늘 제가
- ① 도전받은 말씀은 입니다.
 - ② 삶의 상황은 입니다.
 - ③ 변화는 입니다.
 - ④ 적용은 입니다.

이렇게 나눈 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 합니다.

그 때 모든 사람들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박수”로 격려해 줍니다.

새벽이슬같은 청년 리더들이여!

한 번 뿐인 우리의 젊음을 마음대로 살기 보다는

QT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대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은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이정현
대표

1. 크리스천의 이성교제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국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2외국어로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교제라 할 수 있다.

2. 관계와 행복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_____과의 관계 그리고 _____과의 관계이다.

이 세 가지 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행복해 질 수 있다.

3. 사랑의 실패원인

- 능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이다.
-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
-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욕구불만, 좌절, 상실감, 질투, 견디기 힘든 고통, 원망)

4. 공동체 안에서의 이성교제

- 1) 열린 교제 : 호감이 가거나 좋은 인상을 느껴서 서로 알아가는 교제.
- 2) 1:1 독점 교제 : 열린 교제 중에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하는 교제이다. 결혼을 생각하며 고백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데이트
- 3) 적극적 교제 : 사랑에 빠졌을 때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잘 데이트 할 수 있도록 멘토나 코치에 의해 진행되는 교제방식

5. 고백의 두 가지 종류

- 1) 관심과 매력을 느껴 사귀어 보자는 고백
- 2) courtship : 결혼을 생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완전한 수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다. 이 과정은 기대치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수용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6. 데이트와 결혼을 위한 다섯 가지 예비통장

건강한 데이트와 행복한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소한 다섯 가지 통장.

6.1 정서통장

- 1) 서로 다른 사랑의 욕구 (남자: 인정과 좋은 반응 여자: 배려와 사랑)
- 2) 서로를 칭찬하기
- 3) 건강한 자아상
 -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3대요인 (열등의식, 피해 의식, 비교 의식)
 -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 4) 원활한 의사소통
 - 말하기 : 1. '나'전달법 2. '너'전달법 3.자기 주장법
 - 듣기 : 1. 경청의 태도 2. 경청의 방법 3.공감적 경청
 - 말의 중요성과 효과 : 1.말의 중요성 2.말의 효과
 - 경계 세우기 : 1.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2.거절
 - 생각과 감정 다스리기 : 1.생각 2.감정 3.성령님과 대화 4.격정
 - 비난에 대한 대처방안

6.2 능력(재정)통장

- 1) 여성은 남자의 조건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2) 재정 통장이 부족하면
 -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어라
 - 자신의 자산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자.
 - 돈에 대한 개념을 서로 조율하라

6.3 도우미(조건) 통장

결혼을 하기 위한 도우미와 결혼을 하고 나서의 도우미가 있을 수 있다.

- 1) 결혼을 하기 위한 도우미
 - 중매나 친구의 소개팅
 - 크리스천의 좋은 모임, 세미나를 이용
 - 데이트와 결혼은 일정한 시간을 요한다.(인생의 4계절을 겪어봐야한다.)
 - 인간관계 능력
- 2) 결혼을 하고 나서의 도우미
 - 지연, 학연, 혈연 (부모나 친척이 반대할 때는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교육 세미나와 지속적인 부부 리모델링 작업

6.4 신앙통장

결혼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같지 않다면 정말 어려워 질 수 있다.

- 1) 안 믿는 사람과의 교제
 - 열린 교제는 할 수 있다.
 -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 받도록 도와주세요.
 -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결단을 하세요.

2) 믿음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경우

- 자기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막10:31)

6.5 건강통장

데이트와 결혼을 위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어깨(영성) - 황웅식 목사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어떤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1) 소유하면 행복하다?

2) 좋은 만남이 축복이다?

3) 아는 것이 힘이다?

*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1.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1)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강한 어깨(영성) - 황웅식 목사

- 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리더들은 특별히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 리더는 맡겨진 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리더에게 양의 생명이 달려있다.
- ③ 리더는 에너지 파이프(연결자)이다 : 메시지를 연결하라.
- ④ 소그룹 모임은 리더하기에 달려 있다.

2) 과거의 승리(열매)를 기억하라.

- ① 다윗의 장애물과 극복과정
- ② 다윗은 자신의 혼자가 아니었다.
- ③ 열매를 보면, 과정이 은혜이다.

2.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1) 어려움에 놓이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

- ① 항상 티거를 선택하라. : 랜디포시 “마지막 강의”
- ②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2)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라.

- ①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산다.
 - 인티그리티 : 진실, 성실, 신실(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 ② 승리의 기억 속에 살아야 한다.
- ③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라. :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기 위해서이다.



3.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가라.

1)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

①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 : 믿음으로 승리한 기억을 리마인드 하라.

-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이다.

- 바울은 고전 15: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다.

② 비방금지, 비평금지, 불평금지이다.

-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불평이 없다.

2) 기다림으로 승리하라.

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기다리셨다.(창 3:8절)

- 아브라함 : 실패했어도 기다리고 인내했다.

② 성도는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덕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관심해야 한다.



(통 313)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

G. F. Root, 1866

내가 네 갈 길을...보이고
(시 32:8)

COME TO THE SAVIOUR: 9.9.9.6. REF.
G. F. Root, 1866

보통으로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갑시다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 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쉬운 기타코드(Capo=1st): B^b → A E^b → D F → E Cm → Bm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부르심과 영접

(통 355)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323

이호운(1911-1969)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고전 4:2)

부름 받은 이 몸: 8.8.8.8.D.

이유선(1911-2005)

보통으로

1.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 지가 오리다
 2. 아골골 짝 빈들에도 복음들 고가 오리다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소돔같은 거리에 도 사랑안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 → G Eb7 → D7 Db → C Fm → Em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소명과 중성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 작사/작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score consists of five lin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and guitar ch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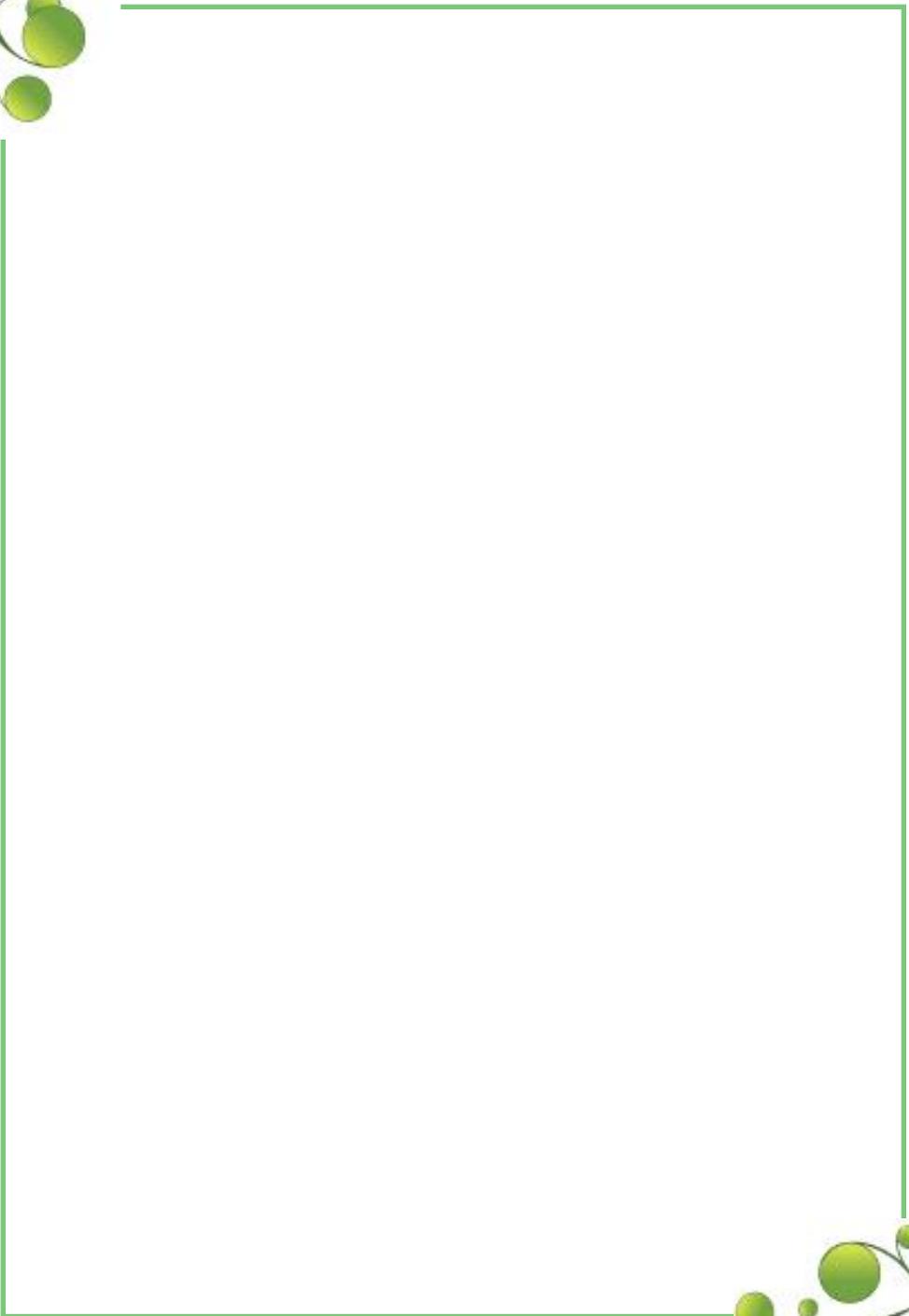
Line 1:
 Chords: C, E7(b13)(#9) Am7, Gm7 F#7b5 FM7, Em7 Am7
 허무한 시절 지날 때 - 깊은 한숨 내쉬는 때 - 그런 풍경 보시며 - 탄식
 억눌린 자 갖힌 자 - 자유함이 없는 자 - 피난 처가 되시니 - 성

Line 2:
 Chords: Dsus4 D7, G7 C, E7(b13)(#9) Am7, Gm7 F#7b5
 하늘분 - 있네 - 고아같이 너 희를 - - 버려 두지 않으리 -
 령님께 - 시네 - 주의 영이 계신 곳에 - 참자 유가 있 다네 -

Line 3:
 Chords: FM7, Em7 Am7 Dm7 G7 C G7 C, Dm7
 내가 너희와 영 원히 - 함께 하 - 리라 - 성령 이 오 - 셧네 -
 진 - 리 - 의 영 이신 - 성 령 이 오 - 셧네 -

Line 4:
 Chords: Esus4 E7/G# Am7 Gm7 FM7 Em7 Am7 C2/D D7 G7/F
 성 - 령 이 오 셧네 - 내 주의 보 내신 - 성 령 이 오 - 셧네 -

Line 5:
 Chords: C/E Dm7 Esus4/B E/G# Am7 Gm7 FM7 C/E Dm7 G7(b9) C
 우리 인생 가운데 - 친히 찾아 - 오셔서 -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



2010년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

펴 낸 날 2010년 3월 19일
펴 낸 이 이규학
엮 은 이 김두범
편 집 정현범 02-399-4371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 메 일 kmcedu@chol.com